

第 11 回

城北區議會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1991年12月2日(月)10時 開式

第 11 回定期會開會式順

1. 開式 1面
2. 國旗에 대한 敬禮 1面
3. 愛國歌 濟唱 1面
4. 殉國先烈 및 戰沒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面
5. 開會辭 1面
6. 閉式 2面

(司會：議事係長 林洛吉)

(10時 開式)

○議事係長林洛吉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第 11 回 城北區議會 定期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國旗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濟唱하시겠습니다.

(愛國歌 濟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沒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李敏衡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그리고 金炳龍 城北區廳長님을 비롯한 關係官 여러분! 오늘, 民主 發展의 새로운 帳을 열어가고 있는 地方議會의 開院 元年에 첫번째로 맞이하는 定期會가 區民들의 깊은 關心속에 開會됨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4月15日 歷史的인 地方自治의 初代議會를 開院한 이래 우리 모두 地域을 利益되게 하는 일이 무엇이며, 住民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努力과 智慧를 한데 모으기 위해 많은

시간을 割愛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바탕 속에 우리 城北區議會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議事堂이 진정한 代議 民主政治의 殿堂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며, 住民의 多樣한 意見을 이 殿堂 안에 收斂하고, 相互 토론과 타협으로 민의를 한데 모아 주민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는 새롭고 참신한 地方議會로서의 機能을 다하기 위해 努力하고 더더욱 進歩된 議政을 펼쳐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리라고 確信합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 地方自治史에서 참으로 重要的 時期에 地方自治 行政의 責任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民主憲政史가 열린지 40年! 試鍊과 激動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함께 손잡고 진정한 民主主義의 뿌리를 내려가는 힘찬 決意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民主自治의 큰 흐름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며, 오로지 주민의 뜻에 따라 住民이 원하는 民主 代議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自由와 自律의 새로운 秩序가 擴散되어 定着돼가고 있는 요즘 同伴協力의 本源的 自治議政을 외면할 수도, 외면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議員 여러분 모두가 하나라는

一體感으로 우리 城北區民의 利益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犧牲과 不利益을 甘受하고라도 몇몇하고 分明하게 여러분의 協力을 要請할 것이며, 與件이 허용하는 最大公約數를 찾아내어 우리 區民 모두가 安樂하고 負擔없는 내일을 期約할 수 있도록 繁榮된 내고장, 愛着이 가는 내마음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同僚 先輩議員 여러분! 우리는 지난 7個月 여 동안 이 議事堂 안에서, 또는 내마을 내地域에서, 때로는 言聲을 높여 보기도 했고, 한때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討論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民主議政에 대한 希望과 期待에 찬 區民들의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한 不斷한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록, 당장 피부에 와 닿는 現實的 變化와 利益은 없다 할지라도 각 분야에 걸쳐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는 우리의 努力이 찬란한 결실의 꽃으로 피어나는 날, 함께 손잡고 기뻐할 내일을 期約해 봅시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자신의 健康을 念慮하듯 仔細함과 細心한 사랑으로 정신적 健康과 財政的 受惠의 平等을 위해 좀더 많은 智慧와 知識과 勇氣를 集中해야 할 것입니다.

社會의 온갖 분야에서 우리 地域의 마을마다에서 提起되고 있는 많은 問題들이 우리의 손길과 關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初代 城北區 議員 모두는 이를 對處하는 能動的이고 複合的인 자기 犧牲의 정신을 發揮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現實을 올바르게 認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目的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며 우리의 區民들은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까?

我執과 獨善으로 住民위에 君臨하던 어제의 權威가 清算되고, 住民 生活의 모든 분야에서 正義와 公正이 實現되기를 바라는 多樣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개개인의 住民과 地域에서 公評과 便益이 確保되고 增進되며, 繁榮이 追究되기를 熱望하고

그것을 可能케 하는 새로운 法制와 慣行을 創出하라고 우리에게 要求하고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關係官 여러분!

이제 地方自治라고 하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던져올린 주사위가 내려앉을 그 자리를 고르고 다지는 일에 60만 城北區民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當付드리면서 특히 저를 포함한 44名の 城北區議員 모두가 區民의 輿望과 時代的 素命을 具現하는데 최선의 協力과 努力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開會되는 定期會에서 우리는 800억원에 이르는 豫算案을 深度있는 論議를 통하여 모든 住民이 滿足하는 새해 豫算이 되도록 努力해야 하며 自治團體의 執行部에 대한 監査와 質疑를 통하여 잘못된 施策을 계속 발전시키고 未洽한 부분은 是正하고 補完할 수 있도록 함께 矜持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定期會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 激勵과 鞭撻을 아끼지 않으신 議員 여러분과 區廳長님을 비롯한 關係官 여러분께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1991年12月2日

城北區議會議長 李敏衡